



예절에 맞는 모습과 행동

사랑과 영혼

1990년에 개봉한 영화 제리 주커 감독의 '사랑과 영혼'을 본적이 있는가? 유선방송에서는 지금도 방송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 '몰리'의 곁을 떠나게 된 '샘'은 천국으로 향하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맴돌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자기를 알아보게 만들고, 그를 살해했던 직장 동료가 또 '몰리'마저 죽이려 하자, 그녀를 위협으로부터 돕고 복수한다는 줄거리이다.

이 영화는 인간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영혼불멸 사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전통의 서양 기독교 신학도 이것을 지지해 왔다.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이 각 개인에게 부여하여 시작은 있지만 불멸한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사후 인간의 영혼은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물론 교리에 따라 연옥煉獄을 설정하기도 한다. 세상을 둘로 나뉘보는 이

원론적 성격이 강하다.

재미있는 점은 이 영화에서 그런 배경과 달리 인간의 억울한 영혼,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혼인 '쌈'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영혼이 점술가의 몸속에 들어가 그의 입을 통해 영혼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서양 민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설정은 우리의 무속과 흡사하다. 이처럼 서양은 물론 인도의 전통도 유신론有神論적 문화가 강하여, 인간의 영혼도 육체를 떠나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윤회설도 영혼불멸 사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성리학이 태동한 중국의 전통은 이와 다르다. 기본적으로 사후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설사 혼백魂魄이라는 영혼이 있더라도,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양의 기운인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음의 기운인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 그것이 혼비백산魂飛魄散이다. 만약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육체를 살려 두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신선이다.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기 위해 단약丹藥을 만들어 먹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련을 통하여 신선이 되고자 하였다. 수련이란 주로 태식胎息(단전호흡)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연히 도교에서 의학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없어진다고 여기겠다. 하지만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의 사후에 효도하는 방법이다.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효심을 발휘하고, 후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고대 중

교의 흔적이다. 조상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기氣는 잠시 머물러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것이므로, 오늘날 서구적 관점에서 말하는 영혼불멸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유일한 것이라는 일원론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은 육체와 영혼은 함께 간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육체의 수련은 곧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앞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육체와 정신은 상호 작용하며, 흐트러진 육체는 흐트러진 정신을 반영한다고 여겼고, 역으로 흐트러진 육체를 바로 잡으면 흐트러진 정신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육체와 정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유가 수양론의 문화적 배경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바로 앞의 글은 마음 곧 안을 다스리는 일인 정심正心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글은 신체 곧 밖을 다스리는 일인 검신檢身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이 둘을 실천함에 있어서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공부에 안팎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였다고 한다. 검신을 직역하면 항공기 탑승 전 몸을 검색하는 것과 같이 몸을 검사한다는 뜻이지만, 스스로 한다는 느낌을 살려 ‘몸의 점검’으로 옮겼다.

네 몸을 공경하라

내 몸은 내 것인가? 많은 젊은이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다.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라. 언젠가 필자의 아내도 내게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니니, 내가 시키는 대로 건강 검진 꼭 받으세요.”라고 말하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정기 건강 검진을 뒤로 미루자는 내게 하루라도 빨리 받으라고 재촉했다.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을 책임진 사람들이니 상대 배우자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요즘 사람들의 생각만도 아니다. 유가들도 취지는 다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 선생이 소개하는 『예기』에 공자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이 나온다.

군자는 행동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지만, 자기 몸을 공경하는 것이 큰일이 된다. 몸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가지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몸을 공경하지 못하면 아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아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뿌리를 상하게 하면 가지도 따라서 죽는다.

여기서 공경은 마음을 집중하는 경敬보다는 외적 태도로서 공경恭敬을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떤 유학자는 공경해야 하는 근거를 두고

“몸은 비록 내게 있는 것이지만 그 기운은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선조로부터 전해진 것이니, 자기 몸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아버지의 기운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오늘날 이런 논리를 누가 따르겠는가? 극단적으로 말해 유전자 때문에 아버지나 조상을 공경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까? 단지 유전자만 물려주고 아버이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게다가 양부 養父의 유전자와 상관없는 입양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남의 정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이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을 다치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걱정하지 않겠는가? 어떤 부모든 자식이 아프면 본인의 가슴이 아프지 않은 자는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의 몸은 자식만의 몸이 아니요, 부모의 몸도 되고 가족의 몸도 되며,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몸도 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몸이지도 않겠는가? 자식은 자기의 몸만 건강하게 잘 관리해도 효도의 길이요, 가족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 몸을 공경하는 일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물론 부모도 자식에 대해 그렇다.

그런데 제 몸을 공경하는 일은 수양의 관점에서 더 근원적이다. 그것은 마치 어른을 대하듯 몸을 조심하고 삼간다는 의미로서 금지하는 말로 진술하면, 가령 몸에 흉악한 문신을 새기거나 상처를 내지 말고, 남과 싸우거나 위험한 곳에 가서 몸을 다치지 말고, 술이나 약을 많이 먹어 몸 상하게 하지 말고, 나쁜 친구를 사귀어 몸을 허락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지? 쉽게 말해 나쁜 곳에 함부로 몸을 굴려 그것을 망치지 말라는 뜻이다. 긍정적으로 진술하면 규범과 예절에 맞고 건강하게 행동하여 몸을 잘 유지하는 일이다. 결국 몸이 반듯해야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인 육체를 소중히 여기거나 경건하게 하는 일은 비단 유학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문화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령 기독교에서 육체는 하느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聖殿}으로 비유되고, 한국의 민족종교나 무속에서는 신령이 거하는 집이며, 도교에서서는 체내신體內神으로서 몸 안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몸을 받들어 공경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 몸을 함부로 망치지 마시라.

무엇을 기준으로 몸을 점검할까?

몸을 공경하는 것이 자기 수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현장에서 몸을 조심해야 할까? 선생이 소개하는 『예기』에 이런 말이 보인다.

군자는 음탕한 소리와 혼란스런 미색에 이목이 머물지 않으며, 음란한 음악과 바르지 않은 예의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게으르고 간사하며 치우친 기운을 몸에 두지 않고, 귀·눈·코·입과 마음과 지각 등 그 모든 것이 바른 것을 따르게 해서 그 의를 실천한다.

인용문은 군자가 감각 작용을 비롯한 몸의 어떤 일도 바르지 못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군자는 수양을 통해 덕을 쌓은 사람을 상징한다. 사실 우리의 몸에는 사고 기능과 감각 기능이 있는데, 사고 기능이 발달하는 데는 경험과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감각 기능은 감각 기관의 장애만 없다면 어릴 때부터 발휘된다. 그래서 사고 기능이 아직 덜 발달한 젊은이들이 외적 감각에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 감각이 중요시되는 예술과 운동에 젊은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기성세대의 그것보다 빠르다는 점도 그 때문이다. 한편 그런 젊은이들이 외적 감각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말해 준다. 아무튼 몸의 점검은 일차적으로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외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점은 일찍이 공자가 극기복례를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그의 제자 안회顔回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보인다. 곧 “예법이 아니면 보지 말고, 예법이 아니면 듣지 말고,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법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 역시 앞서 말한 귀·눈·입과 신체가 기능하는 몸의 감각적인 문제에 대한 공자식 극기의 해법이다. 몸은 감각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감각에 반응하는 정당성의 기준이 예법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공자가 이상으로 삼는 예법은 고대 주나라의 그것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었다. 춘추 시대 당시에는 이 예법이 상당히 붕괴 되어 형식만 남아 있었고, 공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았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자의 예법은 외형적 규범이면서 동시에 내면을 단속하는 수양의 기준이기도 하였다. 마치 공경이 외적 대상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아무튼 몸이 반응하는 정당성을 예법에 두었듯이 율곡 선생도 몸을 점검하는 기준을 예법에 두고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또 『예기』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에게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롭다.”라고 하여, 예법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개인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예법을 중시하는 일은 여러 유학자들의 글에 보인다. 먼저 북송의 유학자 장재張載의 말에 “공부하는 사람이 예의를 버린다면, 종일 실컷 먹고 하는 일이 없어서 하찮은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하는 일이라고 해봐야 옷 입고 밥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수양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과 달라야 함을 주문했다. 또 어떤 사람이 북송의 유학자 정이를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선생께서는 40~50년 동안이나 예법을 삼가 지키셨으니, 매우 수고롭고 괴롭겠습니다.”라고 하니, 정이가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편안한 곳을 밟고 다니는데 무엇이 괴롭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위태로운 곳을 밟고 다니니, 그것이 더 수고롭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편안한 곳이란 바로 예법이고 위태로운 것은 예법이 없는 무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에게 자기 몸을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그것이 예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예법이 편안하다는 것 또한 수양이 되었다는 반증이다.

우리가 더 힘들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다. 우리는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더구나 각자가 따르는 종교도 다양하고, 자신의 가치관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도 다양하다. 어떤 점에서 보면 조선 시대 수양하는 사람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만 하면 되었다. '소학동자'로 알려진 김굉필 선생도 『소학』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던가? 개혁을 꿈꾸었던 조광조 선생도 동아시아 정치의 모델이었던 요순의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쉬워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참 단순한 생각이다. 조선 후기에 오면 학자들 가운데 성인의 가르침을 두고 이전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홍대용 같은 이는 그의 『의산문답』에서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옛날의 도리를 회복하려고 하면 그 몸에 재앙이 미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그때는 전통문화가 지금처럼 크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았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고 예법을 두고 논쟁도 있었지만,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지배층은 전통적 예법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서양과 통상을 꺼린 것도 천주교를 박해한 것도 이런 예법이 무너질까봐 우려한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세계화 된 세상과 다문화 속에 살고 있

다. 이런 세상에 어울리는 예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게 본서를 집필하는 필자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고민이어야 한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또 성균관이나 향교에 관여하는 분이든 아니면 아예 종교가 없든 간에, 적어도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우리의 전통을 떠나서 새로운 예의를 만들 수 없다. 우리의 뿌리로서 우리 문화 유전자 속에, 또 우리의 집단무의식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서양 철학자 가운데, 그것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분들, 또 그것도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만연이 되면, 결국 우리 전통으로 학문적 관심이 회귀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의 답은 거기에 있다는 점이 아닐까?

그래서 전통을 재해석해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각자가 노력해서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범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공부가 답이다. 그 공부마저도 자기가 몸소 체험해서 깨달아 본 것이 아니면 곁돌게 되어 있다. 내가 몸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지금 필요한 예법의 형식은 당장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유가들이 해석한 예법은 수양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점검하면서 마음을 잡도리하는 형식이라는 정도만 알아두자.